

불가리아 글자·유럽 알파벳 작품전

경북도서관, 30일까지 전시회

경북도서관은 12일부터 30일까지 기획전시실(2층)에서 불가리아 키릴문자의 독특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가리아 글자·교육 및 문화의 날(키릴 문자 창제의 날, 5월 24일)을 기념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불가리아어(키릴 문자)가 그리스어, 라틴어와 함께 중세 유럽의 3대 알파벳으로 널리 퍼져나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2007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제5회 트라이에니얼 국제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20개국 30명의 작가가 불가리아 알파벳 개수에 따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포스터 형태로 표현한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소설과 동화책



등도 함께 전시해 불가리아의 문화·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24일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불가리아 페타르 크라이체프 신임대사가 경북도서관에 전시하는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긴밀히 소통·교류하며 우호 관계를 다졌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대사는 “불가리아의 문자들을 경북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준 경북도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국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미기자

‘불가리아의 글자·유럽 알파벳’ 작품, 경북서 기획 전시

경북도서관은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기획전시실(2층)에서 불가리아 키릴문자의 독특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를 열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불가리아 글자·교육 및 문화의 날(키릴 문자 창제의 날, 5월 24일)을 기념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불가리아어(키릴 문자)가 그리스어, 라틴어와 함께 중세 유럽의 3대 알파벳으로 널리 퍼져나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2007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제5회 트라이애니얼 국제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20개국 30명의 작가가 불가리아 알파벳 개수에 따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포스터 형태로 표현한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소선과 동화책 등도 함께 전시해 불가리아의 문화·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24일 김학용 행정부지사과 불가리아 페타르 크라이체프 신임대사가

경북도서관, 중세 유럽 3대 알파벳 ‘키릴 문자’ 포스터 30여 점 전시 페타르 크라이체프 주한 불가리아 신임대사도 방문... 경북과 교류



경북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를 찾은 김학용 행정부지사(가운데)와 불가리아 페타르 크라이체프 신임대사(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북도서관에 전시하는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건민이 소통·교류하는 우호 관계를 다졌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대사는 “불가리아의 문자들을 경북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준 경북도의 배

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국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키릴문자는 전 세계 50개국의 2억5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태어난 선교사인 키릴(Cyril : 827~869)과 메토디우스(Methodius : 815~885) 형제가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동방정교회를 전파할 목적으로 만든 문자이며, 한글처럼 창제자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자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1990년 3월 28일 수교한 불가리아는 발칸반도 동쪽 측해와 맞닿아 있는 유럽에서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써(681년 설립), 의회 공화국이자 EU와 나토 회원국이며, 인구는 약 693만 명 정도다.

김학용 행정부지사는 “불가리아 대사와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민이 키릴 문자와 불가리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글로벌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bo.com

불가리아 글자 · 유럽 알파벳 작품 기획 전시

불가리아 신임대사 전시 관람

경북도서관은 12일부터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불가리아 키릴문자의 독특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가리아 글자·교육 및 문화의 날(키릴 문자 창제의 날, 5월 24일)을 기념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불가리아어(키릴 문자)가 그리스어, 라틴어와 함께 중세 유럽의 3대 알파벳으로 널리 퍼져나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2007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제5회 트라이에니알 국제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20개국 30명의 작가가 불가리아 알파벳 개수에 따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포스터 형태로 표현한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소설과 동화책 등도 함께 전시해 불가리아의 문화·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24일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불가리아 페타르 크라이체프 신임대사가 **경북도서관**

에 전시하는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긴밀히 소통·교류하며 우호 관계를 다졌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대사는 "불가리아의 문자들을 **경북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준 **경북도**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국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키릴문자는 전 세계 50개국의 2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태어난 선교사인 키릴(Cyril : 827~869)과 메토디우스(Methodius : 815~885) 형제가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동방정교회를 전파할 목적으로 만든 문자이며, 한글처럼 창제자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자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1990년 3월 23일 수교한 불가리아는 발칸반도 동쪽 흑해와 맞닿아 있는 유럽에서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써(681년 설립), 의회 공화국이자 EU와 나토 회원국이며, 인구는 약 693만 명 정도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민이 키릴



문자와 불가리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글

로반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유럽 3대 알파벳, 불가리아 키릴문자 만나보세요

경북도서관 30일까지 전시 마련
타이포그래픽 포스터 30점 선봬
불가리아 문자·문화 동시에 체험

경북도서관은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기획전시실(2층)에서 불가리아 키릴문자의 독특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불가리아 글자·교육 및 문화의 날(키릴 문자 창제의 날, 5월 24일)을 기념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불가리아어(키릴 문자)가 그리스어, 라틴어와 함께 중세 유럽의 3대 알파벳으로 널리 퍼져나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2007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제5회 트라이에니얼 국제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20개국 30명의 작가가 불가리아 알파벳 개수에 따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포스터 형태로 표현한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 포스터 속 이미지. **경북**도 제공

이와 함께, 불가리아 소설과 동화책 등도 함께 전시해 불가리아의 문화·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24일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불가리아 페타르 크라이체프 신임대사가 **경북**도서관에 전시하는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긴밀히 소통·교류하며 우호 관계를 다졌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대사는 “불가리아의 문자들을 **경북**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준 **경북**도의 배려에 깊

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국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키릴문자는 전 세계 50개국의 2억5000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태어난 선교사인 키릴(Cyril : 827~869)과 메토디우스(Methodius : 815~885) 형제가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동방정교회를 전파할 목적으로 만든 문자이며, 한글처럼 창제자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자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1990년 3월 23일 수교한 불가리아는 발칸반도 동쪽 흑해와 맞닿아 있는 유럽에서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써 (681년 설립), 의회 공화국이자 EU와 나토 회원국이며, 인구는 약 693만명 정도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민이 키릴 문자와 불가리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글로벌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불가리아 키릴문자 작품 보러오세요

경북도서관 30일까지 전시회

경북도서관은 지난 12일부터 30일까지 기획전시실(2층)에서 불가리아 키릴문자의 독특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불가리아 글자·교육 및 문화의 날(키릴 문자 창제의 날, 5월 24일)을 기념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불가리아어(키릴 문자)가 그리스어, 라틴어와 함께 중세 유럽의 3대 알파벳으로 널리 퍼져나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2007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제5회 트라이에니얼 국제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20개국 30명의 작가가 불가리아 알파벳 개수에 따라 타이포

그래픽 디자인 포스터 형태로 표현한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소설과 동화책 등도 함께 전시해 불가리아의 문화·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24일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불가리아 페타르 크라이체프 신임대사가 경북도서관에 전시하는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긴밀히 소통·교류하며 우호 관계를 다졌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대사는 "불가리아의 문자들을 경북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준 경북도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국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키릴문자는 전 세계 50개국의 2억5000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태어난 선교사

인 키릴(Cyril : 827~869)과 메토디우스(Methodius : 815~885) 형제가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동방정교회를 전파할 목적으로 만든 문자이며, 한글처럼 창제자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자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1990년 3월 23일 수교한 불가리아는 발칸반도 동쪽 흑해와 맞닿아 있는 유럽에서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써(681년 설립), 의회 공화국이자 EU와 나토 회원국이며, 인구는 약 693만명 정도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민이 키릴 문자와 불가리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글로벌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 경북도서관, 30일까지 작품 30점 선보여

중세 유럽 3대 알파벳 이야기
30명 작가 디자인 포스터 선봬

경북도서관이 12일부터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불가리아 키릴문자의 독특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불가리아 글자·교육 및 문화의 날(키릴 문자 창제의 날, 5월 24일)을 기념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불가리아어(키릴 문자)가 그리스어, 라틴어와 함께 중세 유럽의 3대 알파벳으로 널리 퍼져나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회는 2007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제5회 트라이에니

알 국제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20개국 30명의 작가가 불가리아 알파벳 개수에 따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포스터 형태로 표현한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소설과 동화책 등도 함께 전시해 불가리아의 문화·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24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과 불가리아 페타르 크라이체프 신임대사가 경북도서관에 전시하는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긴밀히 소통·교류하며 우호 관계를 다졌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대사는 “불가리아의 문자들을 경북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준 경북도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국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키릴문자는 전 세계 50개국의 2억 5천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태어난 선교사인 키릴(Cyril : 827~869)과 메토디우스(Methodius : 815~885) 형제가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동방정교회를 전파할 목적으로 만든 문자이며, 한글처럼 창제자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자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1990년 3월 23일 수교한 불가리아는 발칸반도 동쪽 흑해와 맞닿아 있는 유럽에서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써(681년 설립), 의회 공화국이자 EU와 나토 회원국이며, 인구는 약 693만명 정도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하는 전시회를 통해 도민이 키릴 문자와 불가리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글로벌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기자

경북도서관, 불가리아 문화 교류의 장 마련

‘글자·유럽 알파벳’ 전시회 개최 타이포그래픽 포스터 30점 선봬

경북도서관은 4월 12~30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불가리아 키릴문자의 독특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가리아 글자·교육 및 문화의 날(키릴 문자 창제의 날, 5월 24일)을 기념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불가리아어(키릴 문자)가 그리스어, 라틴어와 함께 중세 유럽의 3대 알파벳으로 널리 퍼져나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2007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제5회 트라이에니얼 국제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20개국 30명의 작가가 불가리아 알파벳 개수에 따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포스터 형태로 표현한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불가리아 소설과 동화책 등도 함께 전시해 불가리아의 문화·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24일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불가리아 페타르 크라이체프 신임대사가 경북도서관에 전시하는 작품을 함께 관람

하며 긴밀히 소통·교류하며 우호 관계를 다졌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대사는 “불가리아의 문자들을 경북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준 경북도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국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키릴문자는 전 세계 50개국의 2억5천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태어난 선교사인 키릴과 메토디우스형제가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동방정교회를 전파할 목적으로 만든 문자이며, 한글처럼 창제자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자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1990년 3월 23일 수교한 불가리아는 발칸반도 동쪽 흑해와 맞닿아 있는 유럽에서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써(681년 설립), 의회 공화국이자 EU와 나토 회원국이며, 인구는 약 693만명 정도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민이 키릴 문자와 불가리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글로벌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묵 기자

경북도서관, 불가리아 글자·유럽 알파벳 전시회

중세 유럽 3대 알파벳 키릴 문자
포스터 형태 작품 30여 점 전시

경북도서관은 12일부터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불가리아 키릴문자의 독특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가리아 글자·교육 및 문화의 날(키릴 문자 창제의 날 5월 24일)을 기념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불가리아어(키릴 문자)가 그리스어 라틴어와 함께 중세 유럽의 3대 알파벳으로 널리 퍼져나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회는 2007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제5회 트라이에니얼 국제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20개국 30명의 작가가 불가리아 알파벳 개수에 따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포스터 형태로 표현한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소설과 동화책 등도 함께 전시해 불가리아의 문화·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24일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불가리아 페타르 크라이체프 신임대사가 경북도서관에 전시하는 작품을

함께 관람하며 긴밀히 소통·교류하며 우호 관계를 다졌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대사는 “불가리아의 문자들을 경북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해 준 경북도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국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키릴문자는 전 세계 50개국의 2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태어난 선교사인 키릴과 메토디우스 형제가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동방정교회를 전파할 목적으로 만든 문자이며 한글처럼 창제자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자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1990년 3월 23일 수교한 불가리아는 발칸반도 동쪽 흑해와 맞닿아 있는 유럽에서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써(681년 설립) 의회 공화국이자 EU와 나토 회원국이며 인구는 약 693만 명 정도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불가리아 대사관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민이 키릴 문자와 불가리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글로벌 문화에 대한 흥미 유발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kws@hidomin.com

경북에서 유럽 문화를 한눈에

경북도서관서 '불가리아...'展

경북에서 유럽의 문화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경북도서관은 오는 30일까지 기획 전시실에서 불가리아 키릴문자의 독 특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불가리아의 글자·유럽의 알파벳' 전시회를 개최 한다. 이번 전시는 불가리아 글자·교육 및 문화의 날을 기념해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불가리아어(키릴 문자)가 그리스어, 라틴어와 함께 중세 유럽의 3대 알파벳으로 널리 퍼져나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지난 2007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제5회 트라이에니얼 국제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국, 독일, 스위스 등 20개국 30명의 작가가 불가리아 알파벳 개수에 따라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포스터 형태로 표현한 30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소설과 동화책 등도 함께 전시해 불가리아의 문화·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24일 불가리아 페타르 크라이체프 신임대사와 함께 전시 작품을 관람하며 우호 관계를 다졌다. 김창원 기자